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 전주서 개최

전주시·카이스트·전북대 지역혁신센터, 최신 동향·기술 정보 교류 유튜브 생중계

바이오 의료 분야 국내·외 최신 동향과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카이스트(총장 이광형),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센터장 채수찬)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21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신약 개발, 원격 의료 등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가능성을 높이고 바이오 의료 분야 국내·외 최신 동향과 기술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포럼에는 세계 유수의 제약·헬스케어 기관인 사노피, 노보 노디스크, 에이트리엄 헬스를 비롯해 하버드 의대와 카이스트 등 국내·외 대학의 바이오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채수찬 센터장은 카이스트 재직 당시 역임했던 카이스트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정책센터장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포럼 첫 날인 7일 사노피와 에이트리움 헬스 등 글로벌 제약 및 헬스케어 기업의 전문가들이 제약 트렌드에 대한 정보와 바이오 클러스터 전략 등



전주시와 카이스트,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21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을 공유했다.

2일차인 8일에는 김광수 하버드 의대 교수와 라군호 네이버 헬스케어 소장 등이 참여해 줄기세포 치료와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바이오 투자를 주제로 한 강연과 국내·외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설명회가 병행 추진된다.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월드 바이오 이노베이션 포럼 전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포럼에는 바이오 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앞으로 전주시가 바이오 도시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일회성 포럼으로 그치지 않도록 포럼을 통해 형성된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 방안 시민과 논의

전주시, 11일까지 사회혁신전주와 옥성 등 원도심 일원서 '원도심 컨퍼런스' 개최

전주 원도심을 문화예술과 청년 창업으로 가득한 활기 넘치는 공간이자 소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머리를 맞댄다.

전주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사회혁신전주와 옥성(완산구 현무길 31-5) 등 원도심 일원에서 '내일의 전주'를 주제로 '2021 원도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시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 방안을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이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7일 개막식과 함께 시작된 이 컨퍼런스는 8일부터 △도시활동주체 세션 △도시자산화 전환 세션 △도시가치회복 세션 △도시의기록 세션 △미래세대 세션 등 5개 세션과 3

개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도시활동주체 세션의 경우 청년들과 동네책방 등 기획공간들의 운영 방향을 토론하거나 객리단길 사람의 거리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리행사나 예술인·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도시자산화 전환 세션에서는 동근숲 등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원도심 공유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빈집포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

도시가치회복 세션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유통할 수 있는 인권활동 관련으로, 도시의 기록 세션에서는 지역 매거진의 가능성과 원도심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미래세대 세션에는 청년들이 가진 이슈를 수렴하는 자리와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

련된다.

특강으로는 △오래된 건축물과 그곳의 기억의 발굴, 초현실 부동산 △새로운 건물주가 온다, 커먼즈클럽 △소셜임팩트로 SDGs하기, 소풍 벤처스 등이 기획됐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장도 열린다. 이와 함께 △고물자목욕의 공간, 사람, 그리고 기록 △원도심 재생사업 기록물 △시·작 겨울 등 3가지의 기획전시와 함께 △2021 전주 수공예 축제 △무전기카페 △동문 빈집포 솔루션 발표대회 △공연(네트워킹 파티) △전라감영로 거리축제 △원도심 공간라운딩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도 기획됐다.

프로그램별 일정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jeonju_urban)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전주시, 올해 5억800만원 투입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5억8000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총 61개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



법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전주지역 초등학교 75곳 중 61곳에 카메라 설치를 완료한 시는 내년 말까지 나머지 초등학교 14곳에 대해서도 불법주

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아직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4곳의 경우 이동형 단속차량과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배치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이며, 승합자동차는 13만 원이다.

/김윤상기자

전주대 시외버스 정류장 '대표·승차' 통합

대표소와 승차정류소가 분리돼 이용 불편이 지적돼왔던 전주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대표와 승차를 같이할 수 있는 간이정류장으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입해 전주대학교 후문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전주대 간이정류장의 경우 매

포소는 전주대 건물을 사용하고, 승차장은 통학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우려가 상존한데다 냉·난방이 되지 않아 버스를 대기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지적이 있어 왔다.

이제 시는 전주대학교 및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와 간이정류장 설치 및 장소 제공, 사후관리 등에 대한 협의

를 진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 장소를 갖춘 간이정류장을 설치했다.

간이정류장은 냉·난방기 1대와 발열의자 2대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무인발권기 2대가 설치돼 대표와 승차를 같이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전주대 간이정류장에서는 전주대~서울남부터미널을 1시간 10분 배차 간격의 시외버스를 1일 12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현재 1일 200~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 9명에 시장 표창 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등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자원봉사에 앞장서온 시민 9명이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전주시시장에서 2021년 3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일반인 7명과 청소년 2명 총 9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으뜸자원봉사자는 1365자원봉사 포

탈사이트에 등록된 전주시 23만여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 활동횟수, 봉사시간, 참여연수 등의 정량평가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선정된다.

이번 3분기 으뜸자원봉사자로는 총 130여 일에 걸쳐 코로나19 덕진예방접종센터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도운 정종성 씨(52·남)와 이하영 씨(24·여), 봉사단체 열우아눔자 소속 김경아 씨(50·여), 전주시설공

단 소속 박효의 씨(43·남), 서정문 군산간호대학교 학생(24·여)과 김동아 한일장신대학교 학생(21·여) 등이 선정됐다. 또 환경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민간환경감시단의 최명순 씨(58·여)도 표창을 받았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증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지원을 도운 정서이 씨(19·여)와 도서관 이용자 발열체크 및 자료실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홍수민 씨(18·여)가 선정됐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전주사람, 희망천사 감사장·감사패 수여

전주시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이병관)은 7일 전주시시장에서 14명의 희망천사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천사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전주사람의 희망을 지켜주는 천사'라는 뜻을 담고 있는 희망천사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1회 또는 10년간 1004만 원 이상의 기부를 약속한 시민·단체를 말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를 받은 시민·단체는 △강철(전북의식산업) △김경식(전주페이퍼) △김광수(테크카본) △

김승구(휴비스 전주공장) △김택수(전북도민일보) △박근호(전주고려병원) △윤장환(삼화건설사) △이문희(마스크상사) △권00(반월동 거주) △계성건설(주) △(주)내소날모터스 △대방주택(주) △전북현대모터스FC 등이다.

현재까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는 총 68인의 희망천사가 함께하고 있다. 희망천사들이 모아준 민간재원은 전주형SOS긴급지원사업, 전주형 사랑나눔간병비지원사업, 전주사람은행, 복지공동체공모사업 등에 공적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